

證券市場 安定對策

2000.10.18

財 政 經 濟 部

1. 最近 證市動向

□ 10.16일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, 미국증시의 폭등(10/13) 등으로
株價가 큰 폭의 반등을 보였으나,

□ 미국 반도체주가가 크게 떨어지고(반도체지수 5.8% 하락),
現代계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10.17일
주가는 다시 급락

○ 거래소시장은 연중 최저치를 시현(512.85p)

○ 삼성전자(137,000원), 현대전자(9,600원) 모두 연중 최고대비
1/3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이 큼

* 현대계열 주식은 현대전자, 현대증권 등 4개사 하한가 등 대부분 폭락

	99말	9말	10.13	10.16	10.17	변동율 (99말 대비)
거래소(p)	1,028.07	613.22	524.60	550.10	512.85	-50.1%
코스닥(p)	256.14	90.17	80.02	86.71	80.40	-68.6%

* 주요국 주가변동율 : 다우 (-10.9), 나스닥 (-19.1), 일본 (-18.1),
(99말 대비, %) 태국 (-46.5), 대만 (-33.4), 홍콩 (-11.7)

□ 최근 증시하락은 대외적인 여건변화로 投資心理가 급격히
위축된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나

○ 다른 나라에 비해 상황이 더 나쁜 것은 우리 市場의 폭과
깊이가 넓지 않아 외부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임

⇒ 안정적인 需要基盤을 확충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
근본적으로 市場體質을 강화해 나가는 對應策이 필요

2. 市場安定對策

가. 기업의 自社株 취득을 대폭 지원

□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유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稅制上 유인을 부여하고 관련제도 개선

① 자사주 취득후 처분시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여 처분 손실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동 적립분을 손금산입 허용
(한도 : 자사주 취득가액의 30%)

○ 일정기간(5년) 경과후 손실발생분과 상계한 잔액을 익금 산입토록 함으로써 법인세 납부를 이연하는 효과

○ 적용시기는 금년 자사주 취득분부터 적용

* 필요조치 : 조세특례제한법 개정

② 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

○ 현행 : 상법상 배당가능이익(자기자본-자본금-자본준비금-이익준비금)-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

○ 개선 : 상법상 배당가능이익

※ 제도개선시 상장법인 매입여력 증가액 : 약 9조원

* 필요조치 :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

③ 기업이익을 이용한 주식소각절차 개선

-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주식을 소각(이익소각)하기 위해서는 “원시정관”에 근거가 있거나 “총주주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(다수설)”시 가능
- 정관변경절차를 “주총특별결의(출석 2/3, 전체 1/3)”로 완화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

* 필요조치 : 증권거래법 개정

나. 保險會社의 株式投資 規制 緩和

□ 장기 안정적인 수요확충을 위해 연·기금에 이어 장기 투자자인 보험회사의 각종 주식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

① 현재 同一企業이 발행한 주식의 10% 이상(계열기업군 소속 보험회사는 5%)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

- 은행규제 수준인 발행주식의 15%까지 확대하고 계열 소속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 제한을 폐지

※ 공정거래법 제11조에 계열 금융기관은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규제 완화시에도 보험사를 이용한 계열확장의 소지는 없음

② 同一系列에 대한 투자(주식+채권)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5%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식은 제외하여 투자제한을 폐지하거나 한도를 대폭 완화

* 은행, 투신의 경우에도 동일계열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는 없음

③ 보험회사의 주식소유 총한도(총자산의 30%)를 40%로 완화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함

○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40%로 규제되어 있으나 감독규정으로 30%로 축소되어 있음

* ①~③ 시행을 위한 필요조치 :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

※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현황(2000.5말 기준)

총자산	주식	채권	대출	부동산 등
111조원 (100%)	9조원 (8.1%)	19조원 (17.1%)	37조원 (33.3%)	46조원 (41.5%)

다. 개방형 Mutual Fund 허용

☐ 현재 일정기간후 중도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Mutual Fund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허용

※ 개방형 Fund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에 상정된 세법개정(중도환매시 주식양도차익과세 감면)이 필요하고 내년 1월 이전에 조속히 시행

* 필요조치 : 관계법령상 조치는 완료(2000.8)되었으므로 개방형 Mutual Fund의 금감위 등록만으로 가능

라.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투신사에 유동성 추가 지원(1조원)

☐ 9월말에 투신사에 대우 관련 회사채 및 담보 CP 대금(2.5조원)을 지급한데 이어, 추가로 서울보증보험이 투신사 보유 대우 회사채 원리금 1조원을 지급

○ 동 재원은 예보가 우선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출자 (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)